

학생 안보현장 체험 소감문 장려상

천안함 안보 견학을 다녀와서

허 환 (경남 고양예술고)

천안함 사건 2주기를 맞아 천안함을 돌아보며

방송사 우리들은 그때의 그 실수를 잊고 싶은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2년 전 3월, 학원에 갔다가 돌아온 늦은 저녁이었다. 어두컴컴한 밖을 내다보다가 텔레비전을 켜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찾으려 채널을 돌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방송사의 밑쪽에 속보가 뜨기 시작했다.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것이었다.

사실 당시에만 해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고 그 사건의 무게를 쟀 수조차 없었다. 무슨 일인지 관심조차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쟀 수 없는 그 사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일어나 보니 대한민국은 천안함사

진으로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그때가 어제같이 생생한데 벌써 2년이 지났고, 지난 3월 천안함 2주기를 맞아 안보견학을 다녀왔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시는지 '북한 놈들은 거짓말쟁이이며,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일게다.'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치를 떠셨다.

할아버지는 참전용사이시다. 어린 나이에 남한으로 혼자 피난을 나오셔서 어린 나이에 나이를 속이고 전쟁에 참전하셨다. 할아버지는 천안함 사건 때 전우를 잃은 기억이 되살아나 무척 힘들어 하셨다.

"그때 준학이는 스물 한 살이었는데, 내 앞에서 죽음을 맞으면서 엄마를 찾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저 아이들도 바닷속에 가라앉으면서 얼마나 부모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살려고 바둥거렸겠니. 나쁜 놈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해군 제2함대 사령부안을 볼 수 있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군함들이 멋있게 보였다.

우리의 첫 견학장소는 '서해 수호관'이었다. '서해 수호관'에는 제1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까지 자세한 설명과 유품들까지 전시되어 있었다. 2층에는 천안함 전시관이 있었다.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천안함 사건 전말이 정리되어 있었다. 출항 사진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 출항당시와 똑같이 귀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도 안타까웠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천안함을 피격시킨 어뢰의 모습이었다. 안내를 맡은 해군은 자세하게 북한의 어뢰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북한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가족을 그렇게 허

무하게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상적인지조차도 헤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전시되어 있는 것은 46용사와 한주호 준위의 유품이었다. 가족들의 사진과 개인 소지품, 직접 쓴 편지도 전시되어 있었다. 군생활을 하면서 사용했던 유품들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졸업앨범과 성경책도 있었다. 정태준 일병의 유품 중에 고등학교 앨범이 있었는데, 그 유품은 그 때 희생된 병사들이 얼마나 어린 용사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할아버지께서는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시는지 한명 한명 꼼꼼하게 보셨다. 46명의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썼고, 그 일을 하시다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가족들은 모두 꿈에서나 가능한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병사들이 바다에 가라앉으며 받았을 고통이 그대로 전해졌다. '얼마나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에 커다란 돌덩어리를 얹은 듯 무거웠다.

우리는 전시관을 나와 버스로 3분 정도 이동하였다. 그 곳에는 천안함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해군의 안내에 따라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컸다. 천안함 안에 들어가니 천안함과 함께 산화한 용사들의 모습이 하나씩 떠올랐다. 천안함을 둘러보며 '천안함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다.'란 주장을 한 사람들의 루머가 얼마나 조작되었고 사실과 맞지 않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 천안함 침몰과 함께 이런 황당한 루머가 돌았으니 이것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또 한 번 죽이는 일이었다.

배의 뒷부분으로 이동하여 북한의 어뢰로 인해 천안함이 피격당시 그 충격으로 우측의 프로펠러가 많이 휘어 있었다. 이것은 천안함 피격당시 엄청난 힘에 의해 휘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천안함을 북한의 도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프로펠러가 좌초에 걸려 침몰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무리가 있다니 과연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천안함을 견학하면서 2년 전 목놓아 우셨던 유가족의 모습이 떠올랐다. 천안함 용사들은 대한민국의 아들들이었다. 그렇게 순식간에 너무 많은 아들들의 목숨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그때의 기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너무 오랜 시간동안 평화로워서 이런 평화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우리는 지금 휴전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만큼은 그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 더 꽃 피울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바다에서 허무하게 저버린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조용하게 덮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천안함 사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한다. 다시금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지금 모두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 병역비리가 심각하다. 이렇게 하나 둘 피하려고만 한다면 어느 누가 우리 조국을 지켜 줄 수 있을까? 천안함의 그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욱 나서서 모두가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천안함 사건 2주기를 맞아 천안함을 돌아보며 벌써 우리들은 그때의 그 일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